

제 4 교시

사회탐구 영역(생활과 윤리)

성명		수험번호					3					제 [] 선택
----	--	------	--	--	--	--	---	--	--	--	--	----------

1.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윤리학이 보편적으로 타당한 도덕원리의 체계를 구성하여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삶의 지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윤리학이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신념의 진위를 검증하기 위한 추론의 규칙을 검토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도덕적 관행을 경험 과학적으로 기술해야 함을 강조한다
- ② 도덕 추론의 논리적 구조를 분석하는 것이 중요함을 간과한다
- ③ 도덕적 딜레마 해결을 위한 규범의 정립이 필요함을 간과한다
- ④ 윤리학이 학문적으로 성립 가능한지 검토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⑤ 가치 판단을 통해 행위의 옳고 그름을 밝혀야 함을 강조한다

2.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법칙은 모든 유한한 이성적 존재자에게 의무의 법칙이며, 이 법칙에 대한 존경심에 의해서 그리고 자신의 의무에 대한 외경에서 행위를 규정하는 도덕적 강제의 법칙이다.

<문제 상황>

A는 집에서 동생의 무선 이어폰을 실수로 떨어뜨렸다. 귀가한 동생이 자신의 이어폰이 망가진 것을 확인하고 속상해하자, A는 자신이 행한 일을 사실대로 말해야 할지 고민 중이다.

- ① 고통을 겪고 있는 동생의 자연적 경향성을 고려하세요.
- ②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유용성을 극대화하는지 고려하세요.
- ③ 유덕한 품성을 지닌 사람이라면 어떻게 행동할지 고려하세요.
- ④ 물건을 망가뜨린 행위로 발생할 자기 손해를 먼저 고려하세요.
- ⑤ 정직하게 말하는 것이 선의지에서 비롯된 행위인지 고려하세요.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담론 참여자들이 합의를 지향하여 그들의 행위 계획을 조정하는 상호 작용을 의사소통이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도달한 합의는 타당성 주장에 대한 상호 인정에 따라 평가된다. 담론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각자의 개별 상황에 따른 정당성 및 진실성에 관한 주장을 제기해야 한다.

<보 기>

- ㄱ. 담론 참여자 모두가 승인할 때 규범의 타당성이 확보된다.
- ㄴ. 담론 참여자들은 담론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다.
- ㄷ. 담론의 주제로 오류 가능성이 있는 주장을 채택하면 안 된다.
- ㄹ. 담론 참여자들은 항상 사실만을 말하려고 할 필요는 없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4. 다음 토론의 핵심 쟁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의료 기술의 발달로 뇌사자의 생명 연장이 가능해지면서 인간의 죽음에 관한 사회적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죽음의 시점을 정해야 합니다.
을: 동의합니다. 죽음은 심폐 정지를 거쳐 모든 활동이 멈추는 과정입니다. 이를 고려하여 심장과 폐의 비가역적 정지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갑: 인간다움은 뇌의 활동에서 기인하므로 뇌의 정지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의료 자원을 아끼고 뇌사자의 장기 이식을 통해 다른 생명을 살릴 수 있으므로 뇌사도 인정해야 합니다.
을: 그렇지 않습니다. 뇌사를 인정하면 인간의 죽음을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게 되므로 인간 생명이 경시될 수 있습니다.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죽음에 관한 판단은 신중해야 합니다.

- ① 뇌 활동의 영구적인 정지만을 죽음으로 인정해야 하는가?
- ② 의료 기술을 이용하여 뇌사자의 장기를 이식할 수 있는가?
- ③ 죽음의 시점을 고려하여 죽음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가?
- ④ 심폐사를 인정하여 의료 자원의 비효율적 사용을 줄여야 하는가?
- ⑤ 인간의 죽음에 사회적 효용을 적용하여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가?

5.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사랑은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라 활동입니다. 사랑은 원래 '주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형 성격의 사람들은 '준다'라는 행위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는 사랑과 교환의 의미로 사랑을 줄 뿐입니다. 반면 생산적인 사람들은 '준다'라는 행위 자체에서 생명력을 경험하며, 사랑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즐겨워합니다. 그들에게 사랑은 자신의 생명, 즉 기쁨, 관심, 이해 등 자신 속에 살아 있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 ① 진정한 사랑은 생산적 성격이 발달할 때 가능하다.
- ② 진정한 사랑은 사랑을 주는 사람의 생동감을 고양한다.
- ③ 진정한 사랑은 자신이 받은 만큼만 상대방에게 베푸는 것이다.
- ④ 진정한 사랑은 자신의 활동성을 상대방에게 표현하는 행위이다.
- ⑤ 진정한 사랑은 고립감에서 벗어나 상대방과 교류하는 것이다.

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갑: 인(仁)은 사람의 마음이고 의(義)는 사람의 길이다.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놓아버리고 찾지 않으니 슬픈 일이다. 학문의 길은 놓아버린 마음을 찾는 것이다.
을: 학문을 하면 날로 지식이 늘어나지만, 도를 닦으면 날로 지식이 줄어든다. 지식이 줄고 또 줄어들면 무위(無爲)에 이르게 되는데, 무위하게 되면 하지 않는 일이 없게 된다.

- ① 갑: 인의는 하늘이 부여한 것으로서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덕이다.
- ② 갑: 인간의 욕구 중 본성의 발현을 가로막는 욕구를 극복해야 한다.
- ③ 을: 도는 인간의 감각으로 인식할 수 없지만 우주 만물을 낳는다.
- ④ 을: 인위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에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한다.
- ⑤ 갑과 을: 학문의 완성된 경지에 이르러 자신의 명성을 높여야 한다.

7.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시민 불복종은 공리의 원리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우리는 시민 불복종이 중단하려는 악의 크기와 불복종이 초래할 법에 대한 존중의 감소 가능성을 계산해야 한다.
을: 시민 불복종 이론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그 사회는 대체로 질서 정연하면서도 정의에 대한 다소 심각한 위반이 일어나는 사회이다.

<보 기>

- ㄱ. 갑: 시민 불복종은 법 자체의 권위에 저항하는 행위이다.
ㄴ. 을: 시민 불복종은 정당한 법에 대한 위반을 수반할 수 있다.
ㄷ. 갑과 을: 다수에 의해 공유된 정의관은 시민 불복종의 대상이다.

- ① ㄴ ② ㄷ ③ ㄱ, ㄴ ④ ㄱ, ㄷ ⑤ ㄱ, ㄴ, ㄷ

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가 실현될 수 있는 것처럼 제시하지만 그 욕구는 문화 산업에 의해서 사전 결정된 것이다. 소비자가 자신을 영원한 소비자로 느끼게 되는 것이 문화 산업 체계의 원리이다. 문화 산업은 그 위치가 확고해질수록 소비자의 욕구를 더 능란하게 다루게 된다.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욕구를 만들어 내고 심지어 소비자의 재미를 몰수할 수도 있다. 문화 산업의 생산물은 소비자를 휴식 시간에도 잡아 놓는 거대한 경제 체계의 일부이다.

- ① 문화 산업은 생산물을 통해 소비자의 욕구를 조종한다.
- ② 문화 산업은 소비자의 문화 체험 양식에 영향을 미친다.
- ③ 문화 산업은 소비자를 주체적인 문화 수용자로 변화시킨다.
- ④ 문화 산업은 규격품을 만들 듯이 소비자를 재생산하려고 한다.
- ⑤ 문화 산업은 여가 시간에 활발한 소비가 일어나도록 유도한다.

9. 갑, 을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갑: 배아는 인간 생명체로 성장할 가능성이 있지만 배아가 곧 인간은 아니다. 배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에 불과하므로 성인과 같은 도덕적 지위를 갖지 못한다. 따라서 배아 복제는 허용되어야 한다.
을: 배아는 인간 생명의 초기 단계이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 선명한 경계선이 없는 연속적인 과정이므로 배아도 성인과 동등한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 따라서 배아 복제는 금지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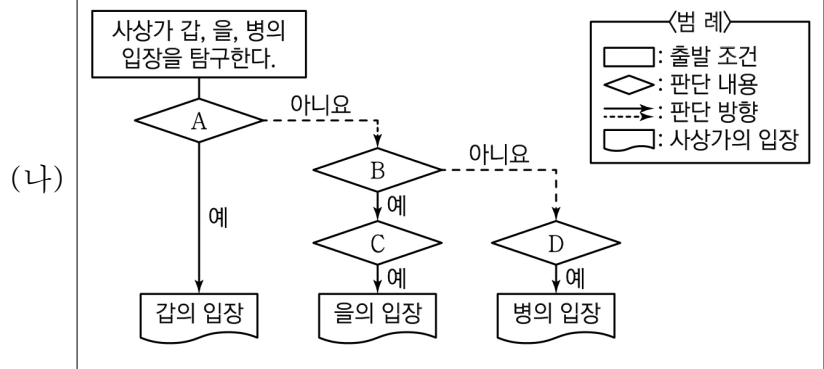
<보 기>

- ㄱ. 갑: 배아는 인간이 될 잠재성을 지닌 존재이다.
ㄴ. 을: 인간과 유전적으로 같은 배아의 활용을 권장해야 한다.
ㄷ. 을: 인간은 발달 단계에 따라 도덕적 지위가 달라질 수 있다.
ㄹ. 갑과 을: 배아 복제는 배아를 수단으로 다루는 행위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10.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갑: 사회 계약은 계약자들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 남을 희생하고 자기 목숨을 보전하길 원하는 사람은 마찬가지로 남을 위해 자기 목숨을 내놓아야 한다.
을: 형벌은 범죄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춰야 한다. 종신 노역형은 사형보다 범죄 의도를 제지하는 데 필요한 엄격함을 더 많이 갖고 있다.
병: 살인을 한 사람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보 기>

- ㄱ. A: 사형 집행은 시민의 이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ㄴ. B: 형벌 집행 시 범죄자의 고통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는가?
ㄷ. C: 형벌이 강력한 범죄 억제책이 되려면 최고의 가혹성을 갖춰야 하는가?
ㄹ. D: 살인자의 생득적 인격성은 상실될 수 없는 가치를 지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수령 노릇을 잘하려는 자는 반드시 자애로워야 하고, 자애로워 지려는 자는 반드시 청렴해야 하며, 청렴해지려는 자는 반드시 검약해야 한다. 씩씩이를 절약하는 것은 수령의 으뜸가는 임무이다.
- 천지의 공리(公理)에 벼슬을 위해 사람을 택하는 법은 있으나, 사람을 위해 벼슬을 고르는 법은 없다. 한 집안의 봉양을 위해서 만백성을 다스리는 수령의 자리를 구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 ① 수령은 공직을 수행할 때 염치(廉恥)를 발휘해야 한다.
- ② 수령은 사치하지 않음으로써 백성에게 모범을 보여야 한다.
- ③ 수령은 관할하는 관청에 불필요한 지출이 없는지 살펴야 한다.
- ④ 백성을 위한 수령의 통치는 애민(愛民)을 기초로 실현될 수 있다.
- ⑤ 자기 가족의 생계를 위해 수령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12.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영구 평화를 위해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세계 시민법의 논의는 박애가 아니라 권리에 관한 것이다. 우호란 한 이방인이 낯선 땅에 도착했을 때 적으로 간주되지 않을 권리를 뜻한다.

을: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적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국제 사회에서 정치적 정책은 권력을 유지하거나 확장하거나 과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보 기>

- ㄱ. 갑: 우호의 권리는 조건부로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
 ㄴ. 을: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해 국가 간의 동맹이 수립된다.
 ㄷ. 을: 주권 국가보다 상위의 권위를 가진 기관이 있을 수 있다.
 ㄹ. 갑과 을: 국제 정치의 영역은 도덕 법칙의 지배를 받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ㄷ, ㄹ
- ④ ㄱ, ㄴ, ㄹ
- ⑤ ㄴ, ㄷ, ㄹ

13. 서양 사상가 갑, 동양 사상가 을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갑: 현자(賢者)는 삶에서 도피하려고 하지 않으며, 삶의 중단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가장 긴 시간이 아니라 가장 즐거운 삶을 누리려고 노력한다.

을: 진인(眞人)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피하지 않는다. 세상에 태어났다고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슬퍼하지 않는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다.

- ① 갑: 죽음은 영혼이 육체에서 분리되는 물리적인 현상이다.
- ② 갑: 죽음이 인생의 악들을 중지시켜 준다는 믿음을 버려야 한다.
- ③ 을: 죽은 자에 대한 애도는 예(禮)에 따라서 마땅히 해야 한다.
- ④ 을: 죽음은 자연의 순리에 따라 기(氣)가 완전히 소멸하는 것이다.
- ⑤ 갑과 을: 죽음 자체는 이상적인 인간도 피할 수 없는 불행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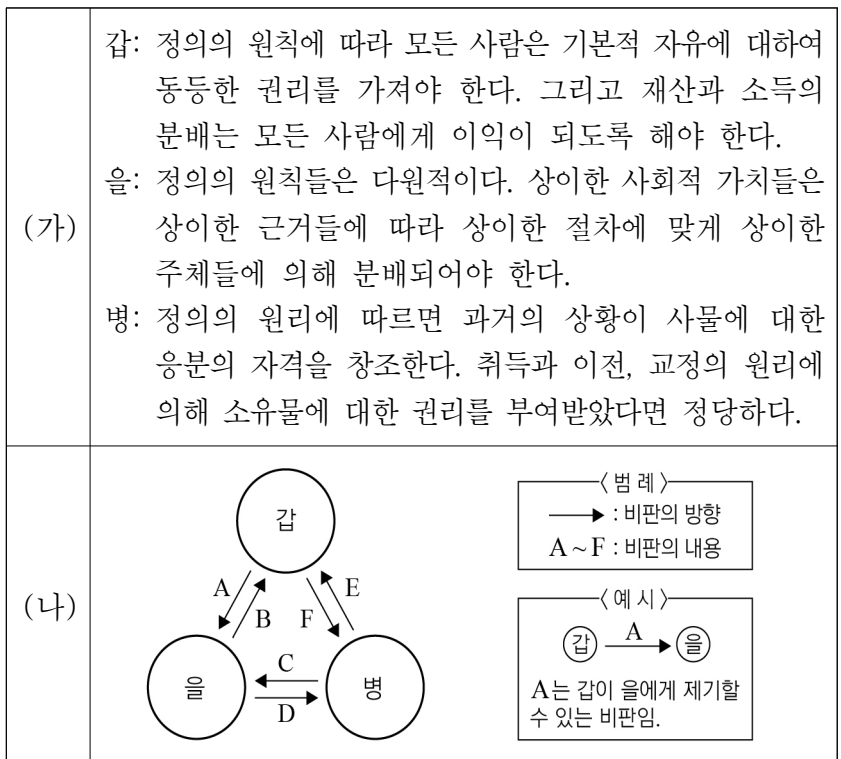
14. 다음은 어느 서양 사상가의 가상 편지이다.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선생님께

보내주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기술이 단지 수단일 뿐이며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기술 그 자체를 중립적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기술은 자연에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강요합니다. 기술은 자연을 몰아세워서 인간과 자연 그리고 이 양자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기술에 숨어 있는 힘은 존재하는 것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하며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 우리는 무방비 상대로 기술에 내맡겨질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볼 때 선생님의 견해는 ㉠ 고 생각합니다. ... (후략).

- ① 기술이 인간과 무관하게 횡포를 부릴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② 기술 그 자체를 윤리적 평가의 대상으로 여겨야 함을 간과한다
- ③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려는 속성을 지닐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기술 활용이 인간의 삶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⑤ 기술이 인간의 목적에 따라 유용한 수단이 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15.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에서 서로에게 제기할 수 있는 비판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F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A와 C: 사회적 가치를 역사적 맥락에 따라 분배해야 함을 간과한다.
- ② B: 사회적 약자의 기본적 자유가 제한될 수 있음을 간과한다.
- ③ D: 특정 영역의 가치를 한 개인이 독점할 수 없음을 간과한다.
- ④ E: 자연적 사실을 조정하는 차등의 원칙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함을 간과한다.
- ⑤ F: 정의의 원칙이 모든 구성원에게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아님을 간과한다.

16.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갑: 원조의 목적은 극단적인 빈곤을 줄여 인류 전체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있다. 우리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절대 빈곤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야 한다.

을: 원조의 궁극적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들의 자유와 평등을 확립하는 것이다. 원조를 제공하는 질서 정연한 사회들은 부정(父情)주의적으로 행위해서는 안 된다.

— <보 기> —

- ㄱ. 갑: 원조 주체는 자기희생에 따른 고통을 고려해야 한다.
 ㄴ. 을: 고통받는 사회를 위한 온정적 간섭은 바람직하지 않다.
 ㄷ. 을: 자유가 확립되지 않은 사회가 모두 원조 대상은 아니다.
 ㄹ. 갑과 을: 원조는 인류의 행복 증진을 위한 무조건적 의무이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ㄹ
 ④ ㄱ, ㄴ, ㄷ ⑤ ㄴ, ㄷ, ㄹ

17. (가), (나) 사상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가) 좋은 음식을 탐내고, 맛있는 음식을 쟁그리며, 온종일 먹으면서도 음식이 생겨난 바를 모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덕 있는 선비는 배불리 먹을 타령을 하지 않아서 허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나) 공양할 때는 마시거나 씹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한다. 음식을 가려서 맛있는 것을 좋아하거나 맛있는 것을 싫어하지 말아야 한다. 밥을 받는 것이 단지 몸을 지탱하여 도업(道業)을 이루기 위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 ① (가): 음식 재료의 출처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삼가야 한다.
 ② (가): 음식 섭취에 관한 예절을 익히는 것은 수양의 일환이다.
 ③ (나): 음식이 맛을 탐닉하기 위한 대상이 아님을 알아야 한다.
 ④ (나): 음식의 의미를 성찰하는 것은 깨달음을 위해 필요하다.
 ⑤ (가)와 (나): 음식을 먹을 때 과도한 욕심을 버리고 절제해야 한다.

18. 갑, 을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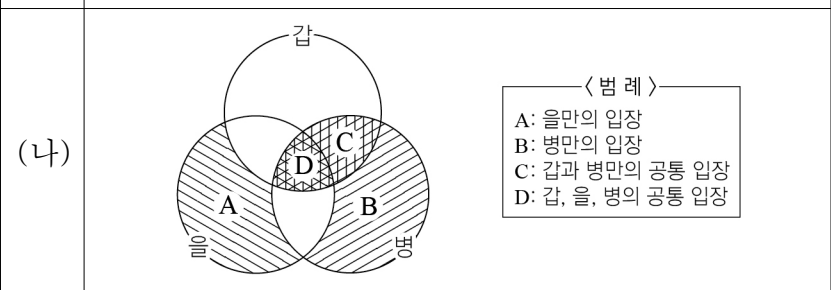
갑: 자연 상태는 모든 인간을 떨게 하는 공통의 힘이 없으므로 인간은 만인의 만인에 대한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된다. 인간은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국가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속한다.

을: 자연 상태는 사람들 간의 분쟁을 해결하는 공통된 법률이 없고, 공평무사한 재판관도 없다. 그래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공동체를 결성하고 자신을 정부의 지배하에 두고자 한다.

- ① 갑: 자연 상태에서 인간은 불의에 맞서 자연권을 행사한다.
 ② 갑: 국가에 대한 시민의 의무는 시민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다.
 ③ 을: 시민은 국가와 맺은 사회 계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④ 을: 입법권은 최고 권력이지만 사회의 공공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⑤ 갑과 을: 평화와 안전 보장을 위해 정치권력은 분립되어야 한다.

19. (가)의 갑, 을,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동물도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이해관계를 갖는다. 인간 종이 아니라는 이유로 동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것은 중 차별주의이다.
 을: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 왜냐하면 타인과 관계 맺을 때 도덕성에 도움이 되는 자연적 소질을 약화시키기 때문이다.
 병: 지금껏 인간의 활동으로 설명되어 온 많은 역사적 사건은 실제로는 사람과 땅의 생명적 상호 작용이었다. 인간은 사실상 생명 공동체의 구성원에 지나지 않는다.



— <보 기> —

- ㄱ. A: 목적 그 자체로 간주되는 개체만이 도덕적 존중의 대상이다.
 ㄴ. B: 자연 그 자체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ㄷ. C: 인간이 유정적 존재를 함부로 대하는 것은 의무에 어긋난다.
 ㄹ. D: 욕구를 지닌 비이성적 존재가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ㄱ, ㄹ ③ ㄴ, ㄷ
 ④ ㄱ, ㄴ, ㄹ ⑤ ㄴ, ㄷ, ㄹ

20. 다음 신문 칼럼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00신문 0000년 00월 00일

칼럼

사이버 공간에 아동과 청소년의 개인 정보가 오랜 시간 누적되면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를 이미 탈퇴했거나 비밀번호를 잊어버렸다면 본인이 게시한 정보를 삭제하는 일은 쉽지 않다. 또한 삭제된 게시물이 여러 사람에게 이미 공유되어 원치 않는 개인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 여전히 남아 있게 된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아동·청소년 디지털 잊힐 권리 시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정보 주체가 지우고 싶은 게시물 삭제를 정부에 요청하면 정부가 그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만 24세 이하 국민 누구나 만 18세 미만 시기의 정보 삭제를 요청하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자기 정보 관리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고 한다. 앞으로 이 시범 사업이 성공적으로 시행되어 삭제 지원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

- ① 개인 정보가 악용되는 경우에만 정보 삭제를 요청해야 한다.
 ② 사회 구성원은 개인 정보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경계해야 한다.
 ③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 정보에 대한 개인의 통제권을 보장해야 한다.
 ④ 사이버 공간에 존재하는 모든 정보는 자유롭게 공유되어야 한다.
 ⑤ 정보를 재생산한 창작자의 법적 권리를 무조건 보호해야 한다.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했는지 확인 하시오.